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여부 오늘 판가름

매장지점 1.5m 추정...1m 굴착
유골 없어도 흙색깔로 판별 가능
미확인 배관 3개 지하수관 확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이르면 9일께 암매장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를 주관하는 5·18기념재단은 문화재 발굴방식을 활용한 만큼 유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신 암매장 흔적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등은 8일 “현재 광주교도소 내 암매장 발굴 구역(길이 117m·폭 3m) 가운데 동쪽 30m 구간은 1m 이상 굴착, 기반토(基盤土)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발굴을 시작해 이날까지 지표 아래 1m 이상까지 파들어가는 등 작업 상황으로 볼 때 이르면 9일에는 암매장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발굴지역 1.5m 지점에 희생자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암매장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발굴 방식에 비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더라도 문화재 발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5·18재단은 117m를 10m씩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하루에 1개 구역씩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조사가 중장비를 동원해 3~4일 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에 비하면 느린 속도다.

문화재 발굴 방식은 시신 매장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땅을 덮고 있는 겉흙을 제거하면 낙엽 등이 섞이지 않은 기반토(基盤土·바탕흙)가 나온다.

발굴실무를 맡고 있는 정일 대한문화재단연구원 실장은 “땅을 파고 다시 덮는다면 기반토에 겉흙이 섞여들어가고 색깔은 검은빛을 띤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의 기반토는 황토색이므로 암매장을 했다면 흙 색깔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굴 작업자들은 지난 6일부터 호미나 작은 삽으로 발굴 구역을 넓혀나다시피 하며 파들어 가고 있다. 8일에는 지하 1m 지점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오며 암매장과 상관없이 과거 땅을 파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때 생활쓰레기 주변 흙은 어두웠다.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은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김보 소령이 지난 1995년 검찰조사 때 제출한 약도와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 소령은 “시신 12구를 2구씩 가마니에 싸서 북쪽 담장 3m 떨어진 지점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5·18 이후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5·18재단은 애초 목표했던 지하 1.5m 지점의 기반토를 통해 김 소령이 진술한 암매장 구덩이 6개 흔적을 찾고 이를 발판으로 유해를 찾을 예정이다.



조심...조심... 대한문화재단연구원 발굴 인력이 8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에서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시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5·18 직후 공수부대원들이 다시 광주를 방문해 가매장한 시신을 발굴해 갔다는 증언이 최근 공개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오전 지하 1m 지점에서 또다시 미확인 배관 3개가 발견되며 작업자들을 긴장시켰지만 법무부 확인 결과 지하수를 교도경비대 관사 등에 공급했던 관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재단은 이를 절단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상임이사는 “발굴 지역에서 배관이 잇따라 발견됐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암매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9일 중 기반토 분석이 완료되면 1차 조사 지역의 암매장 정황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두순 출소반대’ 靑 국민청원 24만명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7일 20만 명을 돌파했고, 8일 오후 4시 현재는 24만여 명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상태다.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했어도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12년으로 선고되자 당시 ‘술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바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1
해질 17:31
달돋이 22:33
달질 11:58

아침 기온 '뚝'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5/19	보	성	맑음	0/17
목포	맑음	6/17	순	천	맑음	4/19
여수	맑음	9/17	영	광	맑음	2/17
나주	맑음	1/18	진	도	맑음	3/17
완도	맑음	8/17	전	주	맑음	4/17
구례	맑음	0/18	군	산	맑음	4/16
강진	맑음	3/19	남	원	맑음	1/18
해남	맑음	2/19	혹	산	맑음	9/14
장성	맑음	2/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남해	면바다	북~북동	0.5~1.0
남해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남해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0:35	05:31
	23:22	18:19
여수	06:07	00:02
	18:56	12:50

◇주간 날씨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8/20	7/14	3/15	4/17	7/14	4/12	3/12

생활지수

산불위험

자외선

미세먼지

높음

보통

보통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함께하는 달빛동맹 세번째 이야기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2017. 11.18 SAT - 11.19 SUN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

Part1. 달빛소통 14:00~16:00
Part2. 달빛나눔 17:00~21:00
Part3. 달빛기쁨 09:00~14:00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문화콘텐츠 중시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광주시민(20~39세) 모집기간 : 2017. 11. 14(화) 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참가비 : 없음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멘토특강
뮤지컬배우 민우혁

주최 · 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